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통역에 대한 인식 연구*

강 지 혜
(아주대)

1. 서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자본·상품·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오늘날 사람들은 “시·공간이 압축된”(Harvey 1990: 238) 세상에서 각종 경계를 가로지르며 생활한다. 세계화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한데, 특히 언어의 관점에서는 그 영향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순되거나 상반된 듯이 보인다. 영어는 역사적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제어로서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영어의 영향으로 소수언어들의 위축 또는 사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Crystal 2003, Skutnabb-Kangas and Phillipson 1994, Phillipson 1992). 현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정보의 80%가 영어로 구성되었으며, 과학기술 및 학술 관련 텍스트는 85%가 영어로 출판되고 있다(Crystal 2003, Garfield 1990). 결국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어

* 이 논문은 2010년 아주대학교 우수연구그룹육성사업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의 확산으로 인해 언어적 다양성은 감소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런 추세 이면에 정반대의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 퀘벡을 비롯한 다중/이중언어 사용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운동과 함께 소수언어의 부활이나 보호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이는 “세계화가 세계 여러 곳에서 지방의 문화적 정체성의 부흥을 이끌어낸다”는 기든스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Giddens 2000: 47-48). 또한 유럽연합과 같은 기구에서는 언어적 평등 없이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평등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언어가 공식언어로 채택되면서 국제어가 아닌 국가어, 민족어, 지역어가 각광받고 있다(Koskinen 2000).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무대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언어 사용의 문제, 언어정체성의 문제는 오늘날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영어 사용의 경제적, 실용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 지라도, 영어 사용의 전지구적 확산은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힘(forces)에 의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국가어, 민족어, 지역어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영어를 중심에 두고 언어적 동질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언어적 이질성의 확산과 다원주의를 향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앞으로 어느 사회든 구성원이 주로 한 언어만을 사용하는 단일언어사용자(monolingual)보다는 이중언어사용자(bilingual)나 다중언어사용자(multilingual)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Cronin 2008: 270).

통번역의 관점에서든 상황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영어는 통번역의 원천언어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cf. Pym 2001, Cronin 2003), 국제 회의에서는 공식어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여 통역의 필요성이 감소하리라는 예측들이 많았다. 그러나 오히려 통역 수행 건수는 전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번역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각종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더욱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다(Bowker 2004).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는 통번역에 대

1)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상 강화와 전지구적인 언어적 다양성의 감소는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다(Skutnabb-Kangas 2000, Phillipson and Skutnabb-Kangas 1996). 하우젠과 같은 언어생태론자는 언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해야 하며, 언어의 생태적 환경도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변화하기 위해 그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augen 1972, 김하수·조태린 2007).

한 높은 수요로 인해 행정예산의 40%가 통번역에 투입된다고 보고될 정도로 통번역은 확산되고 있고, 통번역의 경제적 가치, 정치적 의의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Coulmas 1991, Pym 2001).²⁾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들 비롯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각종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통역, 즉 지역사회통역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며 통역 인력을 양성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Ozolins 2010, 강지혜 2009).

이런 요인들로 인해 국내에서도 통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역에 대한 언론보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데이터베이스인 <KINDS>에서 “통역”을 검색어로 전국종합일간신문(지역종합일간신문, 경제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제외)을 조회해 본 결과 “통역”이 등장하는 기사 건수가 1990년에는 212건, 1995년에는 413건, 2000년에는 771건, 2005년에는 1,287건으로, 2005년까지 5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 물론 “통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기사 건수만으로 통역 현상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 수의 증가는, 통역이 우선 사회적인 관심의 영역 안에 들어오고 있고, 뉴스가치(news value)가 있는 현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역이 언론보도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
- 2) 유럽연합의 회원국 수가 증가하면서 통번역 대상 언어도 증가하였다(언어 조합별로 통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엄청난 통번역 건수를 의미한다.). 현재 유럽연합의 23개 회원국의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번역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유발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를 중심언어(anchor language)로 사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에서는 언어를 중심에 두고 통번역의 경제적, 정치적 가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해준 내용이며 이를 알려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3) 전국종합일간신문에서 “통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가 증가하는 경향은, 개별 언론사 기사에 대한 검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조선일보(chosun.com)에서 운영하는 검색 프로그램에 “통역”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조사해 보면, 1995년에는 월 평균 3-4건에 불과하던 기사가 2000년에는 18-19건으로, 2005년에는 43-44건으로, 2010년 상반기(1월-6월)에는 82-8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임”(frame, Goffman 1974)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의 3개 언론사(통신사 포함)의 통역 관련 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론에서는 사건을 보도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에 따라 뉴스텍스트를 구성한다. 뉴스 프레임이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 현실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특정 사건의 보도에서 어떤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통역에 관한 기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역 보도에 사용되는 프레임에 검토하는 문제는, 통역에 대한 언론의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의 인식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통역보도에서 어떤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역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유형별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Cronin 2002, Diriker 2004). 통역이 국제회의통역과 지역사회통역으로 구분되고, 지역사회통역은 다시 법정통역, 의료통역 등의 하위범주로 세분된다고 볼 때 통역 연구는 주로 어느 한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⁴⁾ 물론 통역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상황과 구조, 소통 참가자, 통역 방식, 통역사의 자격요건 등이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체계적인 통역 연구를 위해서는 통역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역 유형별로 이뤄진 연구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합적 성찰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즉 통번역의 중요한 연구 주제들인 다름의 문제, 문화 간의 만남·교환·수용, 통번역자의 가시성/비가시성, 각기 다른 주체들에 의한 의미 해석의 문제, 권력의 문제 등이 유형별로 논의되었고, 개별 통역 또는 특정 통역 유형 중심의 상이한 논의들이 통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총체적인 인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 논의가 갖는 분절성, 단절성으로 인해 통역의 영역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통역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⁵⁾

4) 여기서 언급한 통역유형은 주로 의사소통 상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 이외에도 통역방식, 통역사의 중개 방향, 소통 참가자의 상호작용 양상, 과학기술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더 다양한 통역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강지혜 2004: 101-126).

5) 최근에는 통역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분절성, 단절성을 극복하여 통합적인 연구

이런 배경 속에서 본고에서는 통역이라는 범주가 언론보도에서 어떤 프레임을 중심으로 제시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역 연구자들은 통역을 개별적으로, 유형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언론이나 일반인들도 이런 유형 중심적인 관점에서 통역을 보는가? 언론에서의 통역 논의는 여타 사회 현상들에 대한 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관계에 대한 논의의 전제가 되는 언어와 통역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통역과 통역에 대한 인식

통역현상은 여러 관점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조명되었는데, 본 절에서는 기존의 통역 연구에서 나타난 접근방식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⁶⁾ 통역에 대한 기존 연구의 관점을 고찰하는 작업은 통역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고찰하기 이전에 논의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 통역을 접근하는 방식과 통역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역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재표현으로서의 통역’(interpreting as reformulation), ‘정보처리로서의 통역’(interpreting as information processing), ‘문화중개로서의 통역’(interpreting as cultural mediation), ‘상호작용으로서의 통역’(interpreting as interaction),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통역(interpreting as social practic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재표현으로서의 통역’은 국제회의통역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점으로서 연사의 발화 내용을 통역사가 다시 표현해낸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Gile 2004, Jones 1998). 통역 연구 초기부터 국

를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디리커의 연구가 있다 (Diriker 2008).

6) 여기서는 그동안 통역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또는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통역이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통역 연구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는 통역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이다.

제회의통역과 동시통역을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특히 다니카 셀레스코비치를 비롯한 ESIT 학파가 옹호하는 접근방식이다(Seleskovitch 1975/2002). 셀레스코비치는 통역이 연사 발화의 이해, 탈언어화(deverbalization) 그리고 재표현(reformulation)의 세 과정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고, 레더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역에서 재표현해 내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의미나 발화의미와는 구별되는 “의미”(sense)라고 말한다(Lederer 1981, Seleskovitch and Lederer 1984). ‘재표현으로서의 통역’은 ESIT 학파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연사 발화의 내용의 전달의 문제, 오역의 문제, 전문가 집단 내에서 또는 전문가 집단 간의 소통 문제 등의 주제들이 이 접근방식에서 집중적으로 탐구되고 있다.

둘째, ‘정보처리로서의 통역’에서는 통역사가 청각적으로 입력된 신호를 전환하여 출력하는 과정이 통역이라고 이해한다. 이 접근방식에서는 통역사의 정보처리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특정 언어로 이루어진 부호가 또 다른 언어의 부호로 치환되는 ‘탈부호화’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 특히 동시성, 통역사의 말 산출(speech production), 기억, 주의력 분산, 인지 전략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Gerver 1969/2002, 1974, Lambert 1988, De Groot 1997, Lambert, Daro and Fabbro 1995). 여기서도 통역 유형으로는 동시통역이 주로 연구되며 특히 동시통역사의 ‘블랙 박스’(black box)라고 흔히 불리는, 통역사의 복잡한 인지 작용을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신경언어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Pöchlhacker 2004).

셋째, ‘문화중개로서의 통역’은 통역사가 언어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출발어 문화권과 도착어 문화권 간의 문화적 차이를 매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카탄은 통역사가 “문화 중개자”(Katan 2004: 11-17)로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통 참가자들 간의 이해를 촉진시킨다고 설명하면서 두 문화권에 대한 이해력은 통역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통역사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뎀은 통번역자가 속한 문화를 “간문화”(interculture)라고 가정하고,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문화의 이항대립을 넘어선, 통번역자 중심적인 문화 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Pym 1998: 177-192). ‘문화중개로서의 통역’ 관점에서는 통역/통역사와 문화의 관계를 비롯하여 문화적 차이를 매우기 위한 통역 방법, 통역의 대상과 범위, 개입의 방식 등의 문제가 연구된다(Kondo and Tebble 1997).

넷째, ‘상호작용으로서의 통역’에서는 병원, 재판, 경찰서 등 각종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통역사가 이주민을 위해 언어 중개를 할 때 통역 과정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통역부스에서 연사의 발화를 유창하게 통역하는 국제회의통역과 달리 지역사회통역에서는 통역사를 포함한 대화의 당사자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면대면으로 각자의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에 참여하게 된다. ‘상호작용으로서의 통역’이라는 용어는 바덴조의 책 제목으로 사용된 후 통역 연구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Wadensjö 1998). 바덴조는 지역사회통역사의 발화에 대한 담화분석을 통해 통역사가 권력관계, 상호작용의 규범 등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언어를 전환하는 작업과 함께 소통 당사자들의 상호작용도 “조율”(coordinating)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강조한다(1998: 105). 이 관점에서 통역을 접근하는 연구자들은 주로 상호작용사회언어학(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 담화분석, 화용론을 토대로 통역의 소통구조, 체면(face)의 문제, 발화요류, 소통에서의 권력관계 등을 연구한다(Roy 2000, Linell 1997, Mason 2001). 최근에는 국제회의통역에 대한 담화분석을 통해 국제회의통역사에 의한 개입과 조율의 문제도 조명이 되고 있다(Diriker 2004).

다섯째,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통역’은 통역을 관습화된 사회적 행위로 보고 통역사의 사회적 관계, 지위와 불평등의 문제, 규범과 의미 해석의 문제, 절차와 권리의 문제, 제도적 통역과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통역’은 특히 전지구적인 이주와 다중언어주의, 인권과 복지, 언어와 차별의 문제 등이 최근 중요한 문제들로 부각하면서 사회학적,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통역이 조명을 받게 되었다(Inghilleri 2005, Pym, Shlesinger and Simeoni 2009, Pym, Shlesinger and Jettmarová 2003, Baker 2006).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는 연구의 급증과 관련하여 피체커는 통역학에서 “사회로의 전환”(social turn)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Pöchhacker 2006: 22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다섯 가지 관점에서 통역을 접근하고 있다. 통역 연구는 기존의 분과학문 체계의 방식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 방법과 주제도 기존의 학문분야들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국내 언론보도에서의 통역 표상

3.1 데이터와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도한 기사(사설, 해설기사 포함) 중 “통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통역이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분석하였다.⁷⁾ 분석 자료는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통역”이 사용된 기사를 조회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기사(사설 포함)는 한겨레신문에서 72건, 조선일보에서 210건, 연합뉴스에서 752건이다. 통역이 간단하게 언급된 기사에서 본격적인 주제로 다뤄진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사가 모두 분석자료에 포함되었으나, 분석과정에서는 통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에 더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별 사용 빈도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은 하지 않고, 프레임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의 성격과 특징을 정성적으로 고찰하였다(cf. Bing and Lombardo 1997). 이를 위해 “통역”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성격(예, 행위, 과정, 수단, 목적, 행위의 주체, 직업, 상태 등)을 분석하는 한편, “통역”과 함께 사용된 표현들(co-text)을 검토하였다. 또한 맥락(context) 분석을 위해 “통역”이 포함된 문장의 선행 맥락, 후행 맥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기사의 논지, 기사에서 언급하는 사회 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뉴스텍스트의 내용과 맥락이 통역이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3.2 ‘프레임’과 뉴스텍스트

‘프레임’ 개념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인류학자인 그레고리 베이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림을 에워싼 액자들이 그림의 경계와 형태를 결정하듯이 사람들은 초점과 배경을 구분함

7) 이념적 지향성이 서로 다른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이외에 연합뉴스를 선택한 이유는, 연합뉴스가 다양한 관점에서 통역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으로써 다른 메시지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베이츰은 설명한다. 이런 액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레임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의 틀이 되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위소통적(metacommunicative)”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Bateson 1972: 188). 상대의 행동에 대해 ‘공격’의 틀을 적용하느냐, ‘장난’의 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액자들의 은유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제시한 베이츰과 달리, 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만은 사회행동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프레임을 논의한다(Goffman 1974). 프레임은 사람들의 경험을 조직하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서 상대의 행동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며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원칙이다. 따라서 현실을 지각하고 표상하는데 있어 ‘도식’ 또는 ‘관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고프만은 상호작용 상황에서 이미 당사자들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해석의 도식이 새로운 상황인식의 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프레임의 역동성을 역설한다.

고프만의 논의가 베이츰에 비해 한층 구체화되었으나, 실증적인 언어 데이터를 통해 프레임 개념이 담화의 해석, 의미의 교환과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학자는 데보라 테넨이다. 언어학자인 테넨은, 프레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는 한편, 특히 바틀렛(Bartlett 1932), 루멜하트(Rumelhart 1975), 에이블슨(Abelson 1976) 등이 프레임, 스키마, 범주 등을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탐구한 논의들까지 통합하여 프레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려 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자극을 백지상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세련되게 지각할 줄 아는 베테랑으로서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경험을 ‘조직화된 덩어리’로 저장해 두고, 세상의 사건과 사물을 이해할 때는 다른 사건과 사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예전 경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한다. 이러한 예전 경험 또는 조직화된 지식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는 체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에도 체계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확

인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통해 개인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새롭게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것이다. (Tannen 1993: 20-21)

테넨에 의하면 언어사용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로 그려진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믿음체계, 세상에 대한 마음속의 모델 등을 토대로 세상을 지각하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프레임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며, 이런 프레임을 토대로 일반적인 언어사용자는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고 ... 자신의 예전 경험을 토대로 세부 정보를 채워 나간다”고 설명한다(Tannen 1993: 21).

이러한 프레임 개념이 뉴스텍스트 분석에 사용되면서 뉴스 프레임은 많은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언론 보도는 중개의 과정, 즉 특정 관점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뉴스텍스트가 제시하는 현실은 결국 ‘구성된 현실’이며, 분석을 통해 어떻게 현실이 구성되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Fairclough 1995, 2003). 연구자들은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의 문제는 특히 ‘선택’과 ‘배제’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뉴스텍스트는 형식의 제약으로 인해 보도하는 사건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전달할 수 없으며, 이는 사건의 특정 요소는 선택되고, 나머지는 뉴스텍스트에서 배제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선택되는 요소는 뉴스텍스트에서 특정 이야기구조 속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 또는 제시되기 때문에 엔트만은 보도 대상의 “특정 측면을 선택해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프레임이라고 설명한다(Entman 1993: 52).

프레임은 뉴스텍스트 작성에서 특정 해석의 틀 중심으로 사건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 알디드와 스노우에 의하면,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 전 미리 기사 형태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취재를 시작하며, 결국 메시지의 내용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 하나의 주제 또는 관점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스토리라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특정 프레임 중심으로 뉴스텍스트를 조직하는 것은 뉴스기사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다(Altheide and Snow 1979: 62). 따라서 통역 관련 기사를 포함한 모든 뉴스텍스트는 특정 프레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통역을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는 프레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3.3 분석결과

통역과 관련해서는 네 종류의 프레임, 즉 ‘소통 프레임’, ‘수익창출 프레임’, ‘다문화지원 프레임’, ‘직업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임은 통역의 특정 측면을 부각하고 있지만, 프레임 간의 경계가 불투명하거나 프레임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뉴스텍스트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이 작동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프레임이 사용되거나 특정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3.3.1 ‘소통 프레임’

‘소통 프레임’은 통역이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통역사는 ‘언어의 중개자’로서 언어코드를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통역 모델은 “도관 모델”(conduit model, Reddy 1979)이다.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통역사는 도관이 되어 메시지의 언어코드만 전환하여 청자에게 다시 보내며, 청자는 최종적으로 도착어로 표현된 메시지를 회수하여 화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수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역 관련 기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레임이 소통 프레임이다.

뉴스텍스트에서 통역현상에 대한 관점과 전반적인 논지가 소통의 달성에 있는 경우 이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소통 프레임을 사용한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ㄱ) 방한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중국으로 출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전화로 ‘깜짝 인사’를 나눴다. 이날 통화는 클린턴 장관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순차통역을 통해 10여 분간 이뤄졌다. 클린턴 장관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친분을 갖고 있다(한겨레신문 2009.2.20).

(ㄴ) 오바마는 회의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되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사르코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누자는 신호를 보낸 뒤 코너에서 통역사만 대동한 채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고, 뒤이어 후진타오에게 그 중 한 가지 안을 메모로 전달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그를 구석으로 불러내 설득했다. 마침내 세 정상들은 보좌관, 통역사들을 대동한 채 구석에 함께 모여 ‘OECD의 리스트에 유의한다’는 문안으로 타협을 이뤄낸 뒤 악수를 했다(연합뉴스 2009.4.3).

(ㄷ) 통화 직후 이 대통령은 즉각 참모들에게 아랍어 통역을 코펜하겐 일정에 동행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배석자들은 “토요일(19일) 귀국 후에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통역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 대통령은 “아랍인들은 금요일도 주말로 여긴다”면서 “금요일에 연락이 온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신문 2009.12.28).

(ㄹ) 어느새 친해진 두 안사돈이 응오씨의 통역으로 도란도란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씨가 “3년 전 바깥사돈 부고를 받고, 남편이 1986년에 경운기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던 기억이 나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했다. 후엔씨가 “남의 땅을 지으면서 쌀국수 장사를 병행해 7남매를 키웠다”고 하자 이씨가 “나도 19세에 결혼해서 논농사를 지으며 5남매를 길러,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안다”고 했다(조선일보 2009.10.28).

소통 프레임은 통역사의 중개로 대화 당사자들이 소통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주로 등장한다. 이 프레임은 소통 상황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회의석상이든(1ㄱ, 1ㄴ), 국가원수 간의 전화통화 상황이든(1ㄷ), 평범한 개인들이 만나는 상황이든(1ㄹ) 상황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소통 프레임은, 앞에서 언급한 ‘재표현으로서의 통역’ 그리고 ‘문화중개로서의 통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재표현으로서의 통역’은 연사와 통역사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사의 발화가 통역사의 언어 전환을 통해 재현되는 문제를, ‘문화중개로서의 통역’은 문화적인 차이를 매우기 위한 통역사의 중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소통 프레임과 관련성이 크다. 특히 소통 프레임에서는 통역과정으로 인한 대화 당사자들의 상호이해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통역이 궁극적으로 개인 간의 공감(1ㄹ)과 정치적·경제적 합의(1ㄱ, 1ㄴ, 1ㄷ)를 도출해 내는 문제

로 연결된다.

이 프레임에서는 통역과 언어를 도구적인 관점에서 본다. 즉 통역은 성공적인 소통, 상호이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 또는 수단이며, 통역이나 언어에는 고유한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 프레임에서 흔히 등장하는 언어표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통역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다/이야기를 나눴다)”, “통역사를 대동한 채/동행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등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ㄷ)의 “이 대통령은 즉각 참모들에게 아랍어 통역을 코펜하겐 일정에 동행토록 지시했다”나 “귀국 후에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통역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에서 볼 수 있듯이 통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통역사’가 아닌 ‘통역’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통역이 도구적인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역 또는 통역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보도도 다음과 같이 소통 프레임을 토대로 한다.

2.

(ㄱ) 이번 시즌부터 인천 유나이티드를 이끌게 된 일리야 페트코비치 감독은 “취임 당시 올 시즌 100골을 넣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연합뉴스 2009.3.4).

(ㄴ) 당시 시나 등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연설 전문을 게재하면서 공산주의가 언급된 단락을 통째로 혹은 일부분 삭제했으며, 연설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던 관영CCTV도 동시통역사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말한 이후 일시적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연합뉴스 2009.11.16).

(2ㄱ)은 통역의 오류가 소통의 실패를 야기한 경우이고, (2ㄴ)은 통역사의 발화에 대한 검열로 인해 소통이 왜곡되는 상황이다. 소통 실패의 원인이 (2ㄱ)에서는 통역사의 오역 또는 오류지만, (2ㄴ)에서는 다른 주체의 의도적인 개입이다. (2ㄱ)~(2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통 프레임은 반드시 소통의 성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통역사에 의한 중개과정이 여러 이유에 의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2)번 예문들을 통해 소통 프레임은 국제회의통역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각종 지역사회통역, 방송통역, 대

화통역 등 여러 통역 유형 및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2 ‘수익창출 프레임’

‘수익창출 프레임’에서는 통역이 수익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 프레임에서도 통역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통역의 경제적 가치가 전경화(foregrounding)되면서 산업 발달, 시장 진출·발굴·확대, 기업의 매출 신장, 경쟁력 제고 등을 달성하는데 통역이 수행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여기서 통역과 언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서비스로 인식되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통역사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제공해 주는 행위자인 동시에 도구이며, 통역행위 이외에도 수익창출 관련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다음 예문들을 통해 수익창출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ㄱ) 더 많은 외국인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다.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해 현대백화점은 최근 점포 매장에 일본어 능통자 4명, 영어 능통자 31명, 독일어 능통자 1명을 배치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외국인 통역담당 인력을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8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쇼핑 도우미’들로 불리는 이들은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영업 직원들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까지 다양하다(조선일보 2009.1.9).

(ㄴ) 이에 발맞춰 ‘의료 관광 특수’에 대비해 의료 현장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 명동 A피부·성형외과는 일본인 통역 요원이 4명이나 된다. 상담할 때 환자들의 질문을 즉시 의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는 중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중국인 통역 간호사를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예전엔 상담 때만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젠 환자들이 수술 때나 수술 후 회복실에서 쉴 때도 요구 사항을 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조선일보 2009.1.13).

(3ㄱ)-(3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익창출 프레임을 토대로 하는 뉴스텍스트

에서는 통역을 다른 경제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행위로 기술한다. (3ㄱ)의 “외국인 쇼핑 도우미’들로 불리는 이들은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영업 직원들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역의 주체는 영업직원들이며 이들이 수행하는 행위는 통역인 동시에 영업이다. 통역과 다른 행위와의 경계선이 다소 모호하게 나타나는 것은 (3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강남의 B성형외과는 중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중국인 통역 간호사를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가 이에 해당된다. 즉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간호사들이 통역을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사람이 통역과 간호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행위가 진료 현장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수익창출 프레임을 토대로 하는 통역이 거시경제적인 맥락에서 논의되는 예문들이다.

4.

(ㄱ) 인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와 국제통상 업무 지원을 위해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서비스 분야는 수출입계약서, 제품설명서 등 수출입 관련 서류, 자료 번역과 수출입 통역 등이고, 대상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이다(연합뉴스 2009.1.21).

(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제주대 통역번역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달 2일부터 무료 통번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대 통번역센터는 국제회의 통역 및 다양한 주제의 전문 번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어 연구원 27명이 소속돼 있다. 제주도는 도내 수출 기업들이 외국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료 통번역을 시범 지원했으며, 그 결과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 2009.1.27).

(ㄷ) 이 교육과정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글로벌헬스케어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의료통역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로부터 인력개발원이 위탁받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7.6).

(4ㄱ)-(4ㄷ)에서는 통역 서비스의 제공이 “수출입 경쟁력 강화와 국제통상

업무 지원”,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글로벌헬스케어의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수익 창출 프레임에서 흔히 등장하는 언어 표현은 “경쟁력 강화”, “특수”, “신성장 동력”, “해외 수출시장 개척”, “영업” 등이다.

3.3.3. ‘다문화지원 프레임’

‘다문화지원 프레임’은 최근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프레임으로서, 통역이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생활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수익창출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지원 프레임은 통역이 언어 중개를 통해 대화자들 간의 소통을 지원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통 프레임이 토대가 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담론’이라는 큰 틀에서 통역사는 흔히 이주민의 ‘조력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는 점이 조명되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과는 구별된다.

이 프레임에서 통역과 언어는 이주민의 정체성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통역이 이주민의 소통을 돕는 수단이기에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주민에게 “목소리(voice)”(Bakhtin 1981)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바흐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설명한다. 이주민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언어인권의 문제(Haugen 1972, Nettle and Romaine 2003)인 동시에 한국 사회에의 접근성, 참여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cf. Van Lier 1996). 다문화지원 프레임을 토대로 한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5.

(ㄱ) 충북 음성군은 거주외국인들의 언어 소통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일부터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

면 군내에는 외국인 취업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4천 300여명이 있으나 이들이 민원상담을 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이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3월 영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일어, 중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의 언어 통역 서비스 요원 21명을 모집해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09.4.13).

(ㄴ) 다문화가정이 많은 경기 안산시는 작년 2월 원곡동에 30억원을 들여 ‘외국인 주민센터’를 열었다. 연중 무휴로 창업과 구직, 다문화공동체 사업, 생활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한다. 무료 진료실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은행을 갖추고 있으며, 8개 언어로 각종 상담이 가능한 통역 지원센터도 운영한다(조선일보 2009.1.20).

(ㄷ) 부천시의회가 다문화(多文化)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최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노동자복지센터 등 16개 관련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만들어 이달 열리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사회 적응·기술 습득 교육 적극 지원, 부천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외국어 통역 서비스,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 교육 등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 출신 국가별 모임 활성화 등이다(조선일보 2009.11.15).

(ㄹ) 경북 구미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는 11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다문화통번역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설립된 다문화통번역센터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필리핀(영어) 출신 2명, 중국 출신 3명, 베트남 출신 3명, 몽골 출신 1명, 인도네시아 출신 1명 등 10명의 통역원으로 구성돼 있다(연합뉴스 2009.3.11).

(5ㄱ)-(5ㄷ)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도 또는 정책으로 제시되는 통역에 대한 내용이다. 통역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는 (5ㄱ)에서는 “거주외국인들의 언어 소통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상담”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ㄴ)에서는 “각종 상담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5ㄷ)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5ㄹ)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5ㄱ)-(5ㄷ)에서는 복수의 프레

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5ㄱ)의 경우 다문화지원 프레임과 소통 프레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고, (5ㄴ)의 경우 다음 절에서 살펴볼 ‘직업 프레임’도 작동되고 있다. 제도나 정책으로서의 통역이 아닌, 개인들이 수행하는 통역이나 개별적인 통역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예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6.

(ㄱ) 2005년 귀화한 외국인자율방범대장 윤제브(46.파키스탄 출신. 무역업)씨는 “입금체불, 외국인 연수생 사이의 다툼, 이주 외국인 결혼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외국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힘쓰겠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역에 적극 나서 분쟁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1.19)

(ㄴ) 이들은 경찰서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 통역 자원봉사를 하는가 하면, 틈틈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시가지 등에서 학교 폭력 예방이나 교통 안전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국 생활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경찰 자원봉사를 통해 만난 이들은 추석 명절 등 짬이 날 때마다 고향의 음식을 나누고, 한국 생활의 고단함을 수다로 푸는 다정한 친구요 언니·동생이기도 하다 (한겨레 2009.10.1).

(ㄷ) 4일 첫 출근한 아리옹씨는 앞으로 공무원 실무 연수를 거친 뒤 도청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다문화가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002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입국한 뒤 서울에 거주하며 두 아이를 둔 8년차 주부 아리옹씨는 몽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이주여성 긴급전화에서 1년6개월간 상담 및 통역요원으로도 활동했다(연합뉴스 2009.8.4).

(ㄹ) 휴대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단체인 ‘한국BBB운동’은 1인 최다 통역봉사 수행자에 해당하는 ‘올해 최우수 활동자’로 조윤희(28)씨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어 통역봉사자인 조씨는 1년 동안 294건의 통역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통 1회 통역 소요 시간이 30분에 달했다고 BBB운동은 전했다(연합뉴스 2009.12.4).

(6ㄱ)-(6ㄴ)은 다양한 사람들이 통역을 통해 이주민들을 돕고 있다는 내용이다. 통역 수행에는 한국인(6ㄴ)과 외국인(6ㄱ-6ㄴ)이 모두 참여하며, 다양한

자격(예, 자원봉사자, 통역요원,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주민 통역사에 대한 기사에서는 다른 이주민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다(6ㄱ-6ㄷ). 여기서 통역은 생존과 소통의 수단이며, 가장 절박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자 차별 철폐, 생활 안정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다문화지원 프레임을 토대로 하는 통역의 유형은 다양하다. 산업현장 통역(6ㄱ), 경찰서 통역(6ㄴ), 전화 통역(6ㄷ, 6ㄷ) 이외에도 통역은 상이한 언어 간의 접촉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행해진다. 지역사회통역의 대표적 유형인 의료통역과 법정통역을 다음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7.

(ㄱ) 정확한 검진 결과를 이해하려면 의학지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근로자와 통역사, 의료진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3자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통·번역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아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등 10개 국어로 거의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연합뉴스 2009.7.26).

(ㄴ) 교육과정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수강생은 수료 후 1년 이내 외국 인환자 무료진료소, 국제메디컬센터, 국제보건의료연수기관 등 공공의료 통역분야에서 100시간의 의무 무료봉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글로벌헬스케어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의료통역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로부터 인력개발원이 위탁받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7.6).

(ㄷ) 울산지법은 외국인 범죄 증가와 함께 관련 형사재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법정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월하게 재판하는데 필요한 전문 통역인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울산지법 손동환 공보판사는 “울산은 산업체가 밀집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이로 인한 각종 폭력과 마약, 성범죄 등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전담 재판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통역인 지정에도 전문성을 갖게 되는 등 재판과정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3.31).

(7ㄱ)과 (7ㄴ)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의료통역을, (7ㄷ)에서는 법정통역을 다

루고 있다. 여기서도 프레임이 중첩되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ㄱ)에서는 다문화지원 프레임과 소통 프레임이, (7ㄴ)에서는 다문화지원 프레임과 수익창출 프레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통역에서 이처럼 프레임 중첩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의료통역을 접근하는 다문화국가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인 글로벌헬스케어산업, 의료관광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역인력 수급이나 정부 지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의료통역은 이주민을 위한 다른 통역 유형과는 다른 위상을 차지한다. 의료통역은 우수한 통역인력과 정부지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법정통역을 포함한 다른 통역 유형은 그렇지 못하다. (7ㄷ)의 법정통역에 대한 내용에서도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문화지원 프레임을 토대로 하는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8.

(ㄱ) 호주 같은 나라는 전국에 70여 곳의 이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직업 교육, 사회 적응, 무료 법률 상담, 의료 혜택 알선 등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주민들의 고국 언어로 뉴스를 전해주는 라디오 채널과 TV 방송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인구비율이 16%인 일본 군마현(縣) 오이즈미(大泉)에선 브라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통역센터를 두고 매달 포르투갈어(語)로 된 정보를 배포한다고 한다(조선일보 2009.8.6).

(ㄴ) 캐나다와 호주 등 이민 선진국들은 다문화 시대에 대비해 50여년 전부터 ‘커뮤니티 통역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이민자들에게 수준 높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조씨는 “일반 통역사들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련되게 다듬어 통역(refurbishing interpretation)’하는 경향이 많으나 커뮤니티 통역은 대상자들이 주고 받는 언어의 의미는 물론 그 수준까지도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의역이 아닌 직역 위주로 하며 거친 표현이나 ‘수준 낮은 어휘’들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연합뉴스 2009.12.21).

(ㄷ) 이곳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4개국 출신 여성이 상주하면서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에 상주하는 여성들이 비전문상담원으로

‘통역’ 수준의 상담밖에 할 수 없으며 한국인 전문상담 인력은 팀장급 1명 뿐이라 실질적인 상담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2009.3.9).

(8ㄱ)-(8ㄴ)에서는 다문화주의와 통역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ㄱ)과 (8ㄴ)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통역제도 소개, 통역방법과 전략에 대한 설명 등 통역의 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즉 통역서비스 제도 도입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논의가 구체적인 통역방법으로까지 진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ㄴ)의 “센터에 상주하는 여성들이 비전문상담원으로 ‘통역’ 수준의 상담밖에 할 수 없으며 한국인 전문상담 인력은 팀장급 1명뿐이라 실질적인 상담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에서는 통역과 상담이라는 상이한 행위가 이주민 지원의 관점에서는 동일선상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이며, 통역보다 상담이 더 전문성이 있는 행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위한 통역이 상담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지원 프레임에서 통역에 대한 논의는 방법과 전략 등의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관련 행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통역보다 상담 등의 행위가 더 근본적인 지원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3.3.4 ‘직업 프레임’

‘직업 프레임’은 소통 프레임, 수익창출 프레임, 다문화지원 프레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조명하는 뉴스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프레임으로 취급한다. 통역이 간단하게 언급된 기사 중 상당수는 특정 개인의 직업으로서의 통역을 언급하는 경우이다(예, 유명 연예인의 결혼 관련 보도에서 예비 배우자의 직업이 통역사라고 언급됨).

직업 프레임은 어느 개인이 통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또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통역을 맡아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도 통역은 정체성의 표현의 의미를 가지며, 통역사라는 직업에는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9.

(㉑)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통번역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국제회의는 특정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통역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기계, 의학 등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어 실력은 물론 우리말의 정확한 표현이나 어휘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조어·유행어·유머 등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역을 하면서 생기는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도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현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문화 교류가 계속 증가하면서 더 다양한 언어의 통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한겨레신문 2009.2.1).

(㉒) 미 대통령 특사로 8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수행하는 미측 통역은 한국계인 이연향(52.여)씨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 국무부 소속으로 통역 경력 20여년의 베테랑인 이씨가 이날 보즈워스 대표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과 함께 특별기가 있는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시내 호텔을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씨는 2005년 3월부터 이화여대 통역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의 통역을 프리랜서로 맡아오다 올해 초 학교를 휴직하고 미 국무부 전속 통역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9.12.8).

(㉓) 팝송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 있다. 내한하는 팝스타들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통역사 태인영(35)씨.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그동안 정말 많은 팝스타들을 만났어요. 몇 명을 만났냐고요? 5년 전까진 328명을 만났는데 그 이후론 세지 못하고 있어요. 인원수를 센다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연합뉴스 2009.8.8)

(㉔) 몽골에서 교육대학을 졸업한 온드라씨는 “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헛갈렸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말 뜻을 알아차리게 됐다”면서 “이젠 한국말을 거의 할 수 있으므로 통역이나 몽골어 강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10.06).

(㉕) 법무부는 결혼 이주여성을 검찰청 전문 통·번역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자격은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결혼이주 여성으로 고졸 이상 학력이어야 하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통·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는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40명을 뽑아 2박3일씩 두 차례(총 47시간) 통역기법, 법무지식, 수사와 인권, 한국의 직업문화·윤리 과정을 교육한다(연합뉴스 2009.10.19).

(ㄴ) 결혼 이주여성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서 잇따라 마련됐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여성들이 자국어를 활용해 통역이나 번역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해 내달 3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고, 오는 12월 중 교육을 시행한다. 교재비와 숙식비, 현장 견학비는 모두 무료며, 수료자중 일부는 추후 지방검찰청 등이 수시로 필요한 통번역 요원으로 추천된다(연합뉴스 2009.10.30).

(9ㄱ)-(9ㄴ)은 통역을 수행하는 직업이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역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고도의 전문적인 언어능력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경우(9ㄱ, 9ㄴ)와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경우(9ㄷ, 9ㄱ)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통역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적지 않은 보수, 사회적 인정, 흥미롭고 도전적인 업무를 암시하는 관점(9ㄱ, 9ㄴ, 9ㄷ),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높지 않지만 이주민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관점(9ㄷ, 9ㄴ),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라는 관점(9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4 논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통역은 언론보도에서 4가지 프레임, 즉 ‘소통 프레임’, ‘수익창출 프레임’, ‘다문화지원 프레임’, ‘직업 프레임’ 중심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소통 프레임에서는 통역이 상이한 언어를 매개하여 대화 당사자 간의 소통과 상호이해, 합의도출을 이뤄낸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수익창출 프레임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나 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 개발

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통역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행위, 제도, 서비스로 인식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다문화지원 프레임에서는 통역을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 정체성의 표현, 생활 편리성 향상의 의미를 가지는 행위로 제시한다. 끝으로 직업 프레임에서는 통역을 유망하고 화려한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이주민이 이주민을 도울 수 있는 직업으로 조명한다.

통역 보도의 4가지 프레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뉴스텍스트와 프레임은 다소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뉴스텍스트가 프레임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뉴스텍스트에서는 복수의 프레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이 되는 프레임은 소통 프레임인 경우가 많지만, 다문화지원 프레임과 직업 프레임이 동시에 활성화된 예문에서 수익창출 프레임이 다문화지원 프레임으로 전환된 예문에 이르기까지 뉴스텍스트에는 다수의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되거나 특정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곧 언론 보도에는 4개의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수익창출 프레임과 다문화지원 프레임은 여러 측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통역과 언어가 수단으로 인식되는가, 목적으로 인식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통역 언어의 종류, 통역 수행의 주체, 통역의 방식 등에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통역과 언어가 수익창출 프레임에서는 수단 또는 경제적 가치로 부각되지만, 다문화지원 프레임에서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본질적인 가치와 상징적인 가치를 모두 가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통역에 사용되는 언어의 경우, 수익창출 프레임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이 언급되면서 특정 산업이나 시장의 특성에 따라 통역언어의 조합이 언급된다. 그러나 다문화지원 프레임에서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분포와 관련하여 언어 문제가 언급되며, 특히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등이 통역언어로 조명된다. 통역 수행의 주체에 있어서도 두 프레임은 차이를 보인다. 수익창출 프레임에서는 전문적인 통역교육을 받은 한국인 통역전문가 또는 특정 분야 종사자 중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이 주로 통역을 수행하지만, 다문화지원 프레임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주민이 통역을 맡는 경우가 주로 언급된다. 통역 방식의 경우 수익창출 프레임에서는 순차통역, 회의통역의 방식이 주로 사용되지만, 다

문화지원 프레임의 경우에는 전화통역, 순차통역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셋째,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통역을 구획하고 조명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의 접근방식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과 공통점을 동시에 보인다. 통역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과학문 체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토대로 통역을 범주화하여 분석하며, 연구 방법과 주제도 기존 분야들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뉴스텍스트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는 통역의 특정 측면 또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접근방식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양측 간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다문화지원 프레임은,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 연구주제들을 다루는 “상호작용으로서의 통역” 그리고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통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인권보호, 차별극복, 언어소통, 제도적 지원 등 세부 주제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통 프레임은 “재표현으로서의 통역”과 “문화중개로서의 통역”과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통역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통역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통역과 사회 담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일례로 언론보도의 수익창출 프레임은 통역의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 통역학자들의 비판적 분석이나 설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 결론

언론의 통역 보도 프레임에 대한 논의는 통역 연구의 현주소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통역학자들의 과제는 통역 현상을 체계적·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통역 연구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방법들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통역학은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역학자들은 기존의 관련 학문분야의 구획 방식에 따라 편리성 위주로 통역 현상을 분류하고 연구하지는 않았는지, 연구 방법도 기존의 관련 분야의 것을 가져오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통역유형 중심의 세분화된 연구 경향은 통역을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는 기여했지만, 통역이라는 범주를 너무 분절적이고 균열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코 통역이 동질적이고 균질한 현상으로 제시되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통역학에서도 다양한 관점에 따라 통역의 제 측면이 정교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형별 연구 일변도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시도 부족은 개별 통역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통역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가로막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형별 연구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통역이라는 현상 이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노력, 연구 결과가 기존의 통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더욱 필요하다.

통역학에서는 ‘실천’이 학문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천의 토대가 되는 사회 담론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이주민 지원과 차별 해소,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통역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통역학계에서도 이주와 다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장과 수익의 창출에 통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통역의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이를 위해 요구되는 통역능력은 무엇인지, 통역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역학이 다른 사회적 현상들과의 관계성에 대해 고민할 때 통역학의 저변은 더욱 확대되고 학문적인 발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강지혜 (2009)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10(4): 9-40.

- 김하수 · 조태린 (2007)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1): 79-104.
- Abelson, Robert (1976) ‘Script Processing in Attitude Formation and Decision-Making’, in John Carroll and John Payne (eds),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33-46.
- Altheide, David and Robert Snow (1979) *Media Logic*, Beverly Hills, CA: Sage.
- Bakhtin, Mikhail Mikhailovich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Ed. Michael Holquist.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and Londo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rtlett, Frederic (1932) *Remember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teson, Gregory (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ng, Janet and Lucien Lombardo (1997) ‘Talking Past Each Other about Sexual Harrassment: An Exploration of Frames for Understanding’, *Discourse and Society* 8(3): 293-311.
- Bowker, Lynne (2004) ‘What Does it Take to Work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 in Canada in the 21st century? Exploring a Database of Job Advertisements’, *Meta* 49(1): 960-972.
- Cronin Michael (2002) ‘The Empire Talks Back: Orality, Heteronomy and the Cultural Turn in Interpreting Studies’,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386-397.
- Cronin, Michael (2008) ‘Translation and the Politics of Proximity’, in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jamins, 265-276.
- Coulmas, Florian (1991)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Idea of a National Language’, in Florian Coulmas (ed), *A Language Policy for the European Community. Prospects and Quandaries*,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1-37.

- Crystal, David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Groot, Anette (1997) 'The Cognitive Stud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hree Approaches', in Joseph Danks, Gregory Shreve, Stephen Fountain, and Michael McBeath (eds), *Cognitive Processe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housand Oaks: Sage, 25-56.
- Diriker, Ebru (2004) *De-/Re-Contextualizing Conference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Diriker, Ebru (2008) 'Exploring Conference Interpreting as a Social Practice: An Area for Intra-disciplinary Cooperation' in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9-220.
- Entman, Robert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airclough, Norma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 Fairclough, Norma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Garfield, Eugene (1990) 'The Languages of Science Revisited: English (Only) Spoken Here?', *Current Comments*, 31: 280-294.
- Gerver, David (1969/2002) 'The Effects of Source Language Presentation Rate on the Performance of Simultaneous Conference Interpreters',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3-66.
- Gerver, David (1974) 'Simultaneous Listening and Speaking and Retention of Prose',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6(3): 337-341.
- Giddens, Anthony (1999)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London: Profile. (박찬욱 역, 2000, 질주하는 세계, 서울: 생각의 나무)
- Gile, Daniel (2004) 'Translation Research versus Interpreting Research: Kinship, Differences and Prospects for Partnership', in Christina Schäffner (ed), *Translation Research and Interpreting Research: Traditions, Gaps and*

- Synergi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0-34.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 Haugen, Einar (1972) 'The Ecology of Language', in Anwar Dil (ed), *The Ecology of Langu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25-339.
- Harvey, Davi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 Blackwell.
- Inghilleri, Moira (ed) (2005) *Bourdieu and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pecial Issue of The Translator* 11(2).
- Jones, Roderick (1998)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Katan, David (2004) *Translating Cultures* (2nd ed.), Manchester: St. Jerome.
- Kondo, Masaomi and Helen Tebble (1997)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egotiation, and Interpreting', in Yves Gambier, Daniel Gile and Christopher Taylor (eds), *Conference Interpreting: Current Trends in Resear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s Benjamins, 149-66.
- Koskinen, Kaisa (2000) 'Institutional Illusions: Translating in the EU Commission', *The Translator* 6(1), 49-65.
- Lambert, Sylvie (1988) 'Information Processing among Conference Interpreters', *Meta* 33(3): 377-387.
- Lambert, Sylvie, Valeria Daro, and Franco Fabbro (1995) 'Focalized Attention on Input vs. Output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ossibly a Waste of Effort!', *Meta* 40(1): 39-46.
- Lederer, Marianne (1981) *La traduction simultanée. Fondements théoriques*, Paris: Minard.
- Linell, Per (1997) 'Interpreting as Communication', in Yves Gambier, Daniel Gile and Christopher Taylor (eds), *Conference Interpreting: Current Trends in Resear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53-69.
- Mason, Ian (ed) (2001) *Triadic Exchanges: Studies in Dialogue Interpreting*, Manchester: St. Jerome.
- Nettle, Daniel and Suzanne Romaine (2000). *Vanishing Voices: The Extinction*

- of the World's Languag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zolins, Uldis (2010)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 Interpreting: Comparative Perspectives on Government Motivation and Language Service Implementation', *The Journal of Specialized Translation* 14: 194-215.
- Phillipson, Robert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on, Robert and Tove Skutnabb-Kangas (1996) 'English Only Worldwide or Language Ecology?', *TESOL Quarterly* 30(3): 429-452.
- Pö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öchhacker, Franz (2006) "'Going Social?" On Pathways and Paradigms in Interpreting Studies', in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Zuzana Jettmarová (eds),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15 - 232.
- Pym, Anth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 Pym, Anthony (2001) 'Translation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Explaining the Diversity Paradox', Paper presented to the workshop "Translation and Institutions" at the Conference 'Language Study in Europ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Societas Linguistica Europea,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28-31.
- Pym, Anthony, Miriam Shlesinger, Zuzana Jettmarová (eds) (2006)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Pym, Anthony, Miriam S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2008)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eddy, Michael (1979/1993)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in Andrew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4-324.

- Roy, Cynthia (2000) *Interpreting as a Discourse Process*,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melhart, David (1975) 'Notes on a Schema for Stories', in D.G. Bobrow and A. Collins (eds), *Representation and Understanding: Studies in Cognitive Sc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85-210.
- Seleskovitch, Danica (1975/2002) 'Language and Memory: A Study of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121 - 129.
- Seleskovitch, Danica and Marianne Lederer (1984) *Interpreter pour traduire*, Paris: Didier Erudition.
- Skutnabb-Kangas, Tove (2000) *Linguistic Genocide in Education - or Worldwide Diversity and Human Righ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kutnabb-Kangas, Tove and Robert Phillipson (1994) 'Linguistic Human Rights, Past and Present', in Tove Skutnabb-Kangas and Robert Phillipson (eds.), in collaboration with Mart Rannut,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71-110.
- Tannen, Deborah (1993) 'What's in a Frame? Surface Evidence for Underlying Expectations', in Deborah Tannen (ed), *Framing in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4-56.
- van Lier, Leo (1996) *Interaction in the Language Curriculum: Awareness, Autonomy and Authenticity*, London: Longman.
- Wadensjö, Cecilia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Wadensjö, Cecilia (2008) 'Community Interpreting',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3-48.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Interpreting in News Texts: A Frame Analysis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paper draws on the concept of “frames” (Goffman 1974) to explore how interpreting is represented in news discourse. Based on an analysis of articles containing the word *thongyek* [interpret/interpreting/interpretation], gathered from three major Korean news institutions, the Hankyoreh, the Chosun Ilbo, and Yonhap News,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2009 to December 31, 2009, the study identifies and categorizes the frames that structure the discourse on interpreting. The analysis of articles reveals that the discourse on interpreting is organized in terms of four frames: “communication frame”, “profit-making frame”, “multicultural support frame”, and “professional fram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eople’s views on interpreting, reflected in the four frame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edia discourse on majo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 Key Words: frames, conference interpreting, community interpreting, multilingualism, news discourse

강지혜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부교수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적 통번역, 미디어와 통번역

논문투고일: 2010년 8월 05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